

끝모를 교회 집단감염...연쇄 확진 잇따라

음악연습실·어린이집·병원·사업장·목욕탕·스파 등 2주간 6116명 확진...조사중 26%·선행 확진자 접촉 39%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쏟아지고 있다. 음악연습실, 어린이집, 병원, 사업장, 목욕탕·스파 등을 고리로 한 연쇄 감염도 잇따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11명이다. 수도권에서 306명(74.5%), 비수도권에서는 105명(25.5%)이 각각 발생했다.

최근 1주간 신규 확진자는 총 2878명이다. 하루 평균으로는 411.1명이며, 이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289.4명에 달한다. 경남권 52.9명, 경북권 20.7명, 강원권 18.7명, 충청권 16.9명, 호남권 12.0명, 제주권 0.6명이다.

새로 확인된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서초구 음악연습실 관련해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11명이다. 지표환자(집단감염 내 첫 확진자)를 포함한 이용자 5명, 가족 2명, 지인 4명이다.

경기 오산시 어린이집에선 지난 20일 이 곳에 근무하는 교사가 처음 확진된 후 접촉자 조사 중 1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15명이다. 교사 5명, 원아 4명, 가족 6명이다.

경기 이천시 육식용품제조업 관련 해선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더 감염돼 누적 11명이 됐다. 지표환자를 포함해 모두 직원이다.

경북 경산시 일가족5 관련해서는 지난 19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8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으론 총 9명이다. 가족 7명, 기타 2명이다.

부산 해운대구 교회2에선 19일 첫 확진자가 나오면서 접촉자 추적 조사 중 8명이 더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10명으로 모두 교인이다.

강원 원주시 의원 관련해서는 2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5명이 더 확진됐다. 총 확진자 수는 6명이다. 종사자 4명, 가족 1명, 지인 1명이다.

기존 집단감염 사례 규모도 연일 불어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교회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으론 20명이다. 교인 17명, 가족 3명이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가족 관련해서는 지난 21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돼 총 34명으로 늘어났다. 가족 관련 13명, 독서교실 관련 5명, 사우나 관련 16명이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교회 관련해선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더 감염돼 총 25명이 됐다. 교회 관련 17명, 유치원 관련 8명이다.

전북 전주시 농기계업체모임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20명이다. 업체모임 관련 7명, 노래방 관련 13명이다. 농기계업체 모임에서 시작된 감염이 노래방 종사자·가족·직원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 중구 사업장에서선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총 22명이다. 종사자 17명, 가족 4명, 지인 1명이다.

대구 수성구 병원 관련해선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18명이 됐다. 병원 관련 7명, 지인 관련 11명이다.

경북 경산시 스파 관련해서는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더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늘어났다. 직장 관련 2명, 스파 관련 18명이다.

부산 서구 종합병원에선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더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누적으론 24명이다. 종사자 12명, 가족 8명, 기타 2명, 지인 2명이다.

경남 진주시 요양병원 관련해선 5명이 추가돼 누적 13명으로 늘어났다. 종사자 3명, 환자 6명, 간병인 3명, 가족 1명이다.

경남 거제시 유흥업소·기업 관련해서는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돼 총 157명이다. 목욕탕1 관련 2



명, 목욕탕2 관련 7명, 목욕탕3 관련 5명, 유흥시설 관련 48명, 기업 관련 95명이다. 유흥시설에서 시작된 감염이 목욕탕·직장→가족·지인으로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존 '경남 거제시 목욕탕 관련'과 '경남 거제시 소재 기업3 관련'이 유흥시설 관련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돼 하위집단으로 분류했다.

강원 속초시 어린이집 관련해선 접촉자 추적관리 중 5명이 추가 확진됐다. 누적 확진자는 34명이 됐다. 어린이집1 관련 25명, 어린이집2 관련 7명, 어린이집3 관련 2명이다. 기존 '속초시 체조원 관련' 추가전파로 분류됐던 '어린이집 관련'이 역학조사 결과에서 역학적 연관성이 미흡해 별도의 사례로 분리했다.

최근 2주(11~24일)간 신고된 6116명의 감염 경로를 구분해보면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조사중' 사례가 1617명(26.4%)에 달한다.

선행 확진자 접촉 2313명(37.8%), 집단발병 1778명(29.1%), 병원 및 요양병원 등 154명(2.5%), 해외유입 250명(4.1%), 해외유입 관련 4명(0.1%) 순이다.

최이슬기자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단체는 앞서 이날 현장 구조활동에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구조 당시 고양이 건강 상태는 치료 시급할 정도였다"며 "A씨가 반려묘를 허가 없이 사육하면서 불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다수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 행정당국의 무허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광주 남부소방, 차량사고 대비 폐차활동 특별구조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다음달 23일까지 이론 및 실습 등 9차례에 걸쳐 현장대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폐차를 이용해 차량화재 및 교통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유압 장비를 동원해 차량의 문을 열거나 보닛을 개방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맞춤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차량 보닛 및 시건 개방, 차량용 문개방기 정비 숙달, 사고 대응 절차 숙달, 유압구조장비, 에어백 등 구조장비를 활용한 차량 해체, 안정된 작업을 위한 차량 고정 및 지지, 인명 구조·구급 응급처치 등 대원 간 임무 분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봄철 따뜻한 날씨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외곽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사고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영암소방,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화재안전대책' 추진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영암 실내체육관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 및 예방접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암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강화(대응 2단계 등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완료했고, 해당시설의 소방시설 등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영암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강화(대응 2단계 등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완료했고, 해당시설의 소방시설 등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진경찰, 보이스피싱사기 예방한 신협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한 강진신협 본점 직원 신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신협 직원 신 씨는 지난 8일 피해자(76세)가 창구를 방문하여 예금 2천만 원을 아들에게 송금 의뢰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직접 아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피해자는 아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리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국민은행을 사칭한 피싱범에 속아 직원 신 씨에게 송금을 요청한 것이다.

강진=김영일기자

무안경찰, 절도 취약 무인점포 맞춤형 방범 활동 펼쳐

무안경찰서(서장 윤후)는 15~16일 2일간,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도보 순찰을 하는 등 맞춤형 방범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인점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점포는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어 범죄에 취약하고 심야시간에는 더더욱 범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무안경찰청은 범죄예방단팀(CPO)을 중심으로 관내에 위치한 무인점포를 진단하고 도보 및 순찰차를 활용한 탄력순찰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윤후의 무안경찰서장은 "코로나19 시기 늘어나는 무인점포 범죄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주 남부소방, 차량사고 대비 폐차활동 특별구조훈련

광주 남부소방서는 다음달 23일까지 이론 및 실습 등 9차례에 걸쳐 현장대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폐차를 이용해 차량화재 및 교통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이날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유압 장비를 동원해 차량의 문을 열거나 보닛을 개방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맞춤형 훈련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 내용은 차량 보닛 및 시건 개방, 차량용 문개방기 정비 숙달, 사고 대응 절차 숙달, 유압구조장비, 에어백 등 구조장비를 활용한 차량 해체, 안정된 작업을 위한 차량 고정 및 지지, 인명 구조·구급 응급처치 등 대원 간 임무 분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실습으로 진행됐다.

정선모 남부소방서장은 "봄철 따뜻한 날씨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외곽으로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량사고 시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가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영암소방,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화재안전대책' 추진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영암 실내체육관의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대응 및 예방접점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영암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강화(대응 2단계 등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완료했고, 해당시설의 소방시설 등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후 영암소방서는 화재 발생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강화(대응 2단계 등 소방특별조사 및 화재발생시 안전한 대응을 위한 화재안전정보조사 완료했고, 해당시설의 소방시설 등이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강진경찰, 보이스피싱사기 예방한 신협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지난 23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한 강진신협 본점 직원 신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신협 직원 신 씨는 지난 8일 피해자(76세)가 창구를 방문하여 예금 2천만 원을 아들에게 송금 의뢰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직접 아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감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했다. 피해자는 아들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리 대출을 받고자 한다며 국민은행을 사칭한 피싱범에 속아 직원 신 씨에게 송금을 요청한 것이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도심 무허가 고양이 사육장 적발

비좁고 열악한 환경서 45마리 구조...각종 질환 확인

광주 도심에서 판매 목적으로 불법 번식 등을 일삼은 무허가 고양이 사육장이 적발됐다.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시·자치구 등과 함께 고양이 불법 번식 사육장으로 의심되는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주택가 지하실을 방문, 고양이 45마리를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발견 당시 비좁은 지하실 내 다닥

다닥 붙은 철제 우리 7곳에는 고양이들이 배설물 등 오물 더미에서 방치돼 있었다.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사육 환경 속에서 대부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각막염·피부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이 전염병인 '허피스' 등도 사육장 내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단체는 설명했다.

인위적 혼종 교배로 낳은 고양이도 있어 유전 질환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해당 시설에서 고양이를 사육한 A씨가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고양이를 번식,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수십만 원에 판매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에도 무허가 고양이 사육장을 운영했다.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서 구조된 고양이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단체는 앞서 이날 현장 구조활동에 앞서 광주 북부경찰서에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 관계자는 "구조 당시 고양이 건강 상태는 치료 시급할 정도였다"며 "A씨가 반려묘를 허가 없이 사육하면서 불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다수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 관할 행정당국의 무허가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